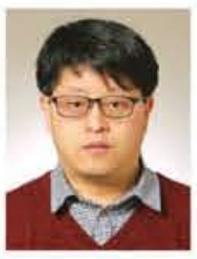
환경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이상기후와 관광농원

한동안 밤마다 찾아와 숙면을 방해하는 열대야 때문에 힘들더니, 급작스런 폭우가 전국을 강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흘리는 땀이 단순히 더위 때문이 아닌, 보람 있는 땀, 즉 값지고 의미 있는 풍요로움을 위한 땀이 되려면 우리의 손을 애타게 찾는 이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를 위한 연민의 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혹서를 대비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2일이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大暑)인데, 대서 이후 약 20일간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로 중복과 겹쳐 불볕더위나 찜통더위 같은 표현들이 생생하게 실감 나는 때입니다. 옛말에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고, 농가에서는 삼복에 비가 오면 대추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할 만큼 농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볕더위와 함께 때때로 태풍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는 관광농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광농원은 사회적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촌교회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측면이 그렇고, 농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안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이상기후는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 태풍, 가뭄 등 잦은 자연재해는 관광농원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는 예약 취소로 이어져 매출 감소로 직결되며, 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농원의 부담으로 남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지만, 관광농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의 유입은 저조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원들이 유사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여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순히 농작물 수확 체험이나 동물 먹이 주기 등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별 농원이 독자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상기후와 급변하는 사회는 농촌교회가 그렇듯 관광농원에도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6 청소년

"공무원이란?"

큰 비가 예고되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는 처음 겪는 것 같다.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차도는 통행금지에 곳곳이 강물 같은 모습이 포착되고 산사태와 수많은 차들이 떠밀려 나가는 뉴스를 보니 무서웠다. 일상이 마비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비는 안 내릴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번 비에 많이 놀랐으나 신속히 수습하는 모습에 국가에 대해 감사함과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국가의 재난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들이다. 119나, 소방관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이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철밥통'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ivil servant" 또는 "public official" 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표현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직급에 따라 "government employee" 나 "public service worker" 로도 사용된다. servant(설번트)는 하인, 종, 종업원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신조〉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근무하는 동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다.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았는가? 공무원의 의무도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관례상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전서열은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 국회부의장 8) 감사원장 9) 국무위원(정부조직법에 의한 서열), 국회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10) 장관급, 국회의원,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11) 차관, 차관급 그리고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다. 시장, 구청장, 의원이 있다. 교육공무원도 있다. 교사가 그들이다. 경찰과 소방관들도 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청소년들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본 공무원의 모습은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없다면 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1,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 교회와 코이노니아(7)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백쉰세 마리나 잡도록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미리 빵 한 덩이와 생선 한 마리를 숯불에 구워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셨다.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가져다주시면서 조반을 들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다. 여기서 이것들은 잡은 물고기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들을 잡는 것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가족의 생계 수단이자 부의 축적 수단으로 재물과 같다. 이는 마치 농부들에게 곡식이 그러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다(요한복음 21:15). 물고기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 물고기를,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면서,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빵과 물고기를 배고픈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또 하나의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란, 식탁 사역(구제)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전도, 교육)의 뜻도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식탁 사역을 위해 따로 집사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게 된 것이다(사도행전 6:1-6).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 식탁 사역(구제)을 수행한 것은, 앞선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도들이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식탁 사역을 수행한 것과 같다.

혹자는 넉넉한 성도들이 가족 몫을 초과하여 갖고 있던 땅들과 집들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초기에만 잠시 나타났을 뿐이지 지속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코이노니아'와 '빵 나눔'(성찬)과 '기도'를 '잠시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힘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와 똑같이 '빵 나눔'(성찬)과 '기도'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와 '빵 나눔'(성찬)과 '기도'는 모두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묶음으로 계속해서 힘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빵 나눔'(성찬)과 '기도'를 계속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가족 몫을 초과하는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물질의 코이노니아' 역시, '빵 나눔'(성찬)과 '기도'처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힘썼다고 보아야 옳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경우,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사도행전 8:1)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들에서도 '물질의 코이노니아'는 지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보'(捐補)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홈페이지 ims21.tv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손 안의 신문'

①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②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③ 지난 기사 · 일반 정보 · 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